

“스쳐 지나가는 여행은 NO” 광양의 구석구석을 걸어요

신록 짙어가는 싱그러운 백운산둘레길... 스토리 가득한 9개 코스, 총 126.36km

광양시가 신록이 짙어가는 5월을 맞아 단순한 드라이브 여행을 넘어, 광양의 구석구석을 느긋하게 걸으며 깊은 인상과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걷기 여행을 제안했다.

시는 장엄하고 싱그러운 백운산둘레길을 비롯해 섬진강 망덕포구, 배알도 섬정원을 품은 남파랑길 광양코스 등 광양 곳곳의 특별한 걷기 명소를 추천했다.

● 신록 짙어가는 싱그러운 '백운산둘레길' 9개 코스(총 126.36km)

해발 1,222m 백운산이 거느린 백운산둘레길은 총 126.36km의 명품 길로 '천년의 숲길', '외갓집 가는 길' 등 아름다운 자연과 시간의 무늬를 간직한 9개 코스로 구성됐다.

제1코스 '천년의 숲길'은 옥룡사지~외산마을~백운산자연휴양림~금목재~논실로 이어지는 총길이 10.86km의 길로, 장엄한 백운산 푸른 능선과 눈 맞추며 걸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다.

제2코스 '만남이 있는 길'은 논실마을에서 한재, 중한치마을을 거쳐 하천마을에 당도하는 총길이 11.4km의 길이다.

제3코스는 유려한 섬진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섬진강 매화길'로, 이 길은 광양과 하동을 잇는 남도대교에서부터 매화마을까지 이어진다. 봄 햇살에 부서지며 반짝이는 섬진강의 윤슬이 백미인 이 코스의 총길이는 20.3km이며 완주까지 7시간이 소요된다.

제4코스 '백학동 감꽃길'은 매화마을에서 백학동 마을까지 맑은 수어호와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억불봉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제5코스는 백학동마을~웅동교~죽양마을~국사봉랜드로 이어지는 '외갓집 가는 길'이다. 어머니 품처럼 푸근하고 따뜻한 정서가 묻어나는 이 코스의 총길이는 14.4km이며 완주까지는 5시간이 소요된다.



제6코스는 '선비누리길'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짚신을 신고 대치재를 넘은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옛 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이 코스는 옥룡사지~대방마을~대치재~국사봉랜드로 이어지며, 총길이는 12.7km, 완주까지 약 4시간이 걸린다.

제7코스 '중흥사 토성길'은 광양이 가진 오랜 역사와 문화를 엿보고 사색하며 걸을 수 있는 고즈넉한 길이다.

제8코스 '달 뜨는 길'은 하조마을~성불교~월출재를 잇는 총길이 8.4km의 구간이다. 성불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성불사의 그윽한 풍경소리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사색하게 되는 이 코스를 다 걷는 데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제9코스 '함께하는 동행길'은 월출재를 출발해 효죽마을과 중평마을을 지나 하천마을에 이르는 구간으로, 총 25.4km에 달하는 장거리 여정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나주시, 공산 월평마을 '마을 알림석' 제막식 진행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계기 마련... 자긍심 고취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마을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은 '마을 알림석'을 제막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산면 월평마을 알림석 제막식은 윤병태 나주시장, 마을주민,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월평마을의 새로운 상징물을 함께 축하했다.

알림석은 마을의 이름과 유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아 제작해 외부 방문객에게 첫인상을 전하고 주민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상징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했다. 특히 문구와 디자인을 마을 회의를 통해 결정한 점에서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이 돋보였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내빈소개, 제막식 및 기념 촬영과 마을 공동 점심 식사 순으로 진행됐고 행사 후에는 마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사례처럼 마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마을들이 자생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21~23일 지역 대표 관광지 왕인박사유적지에서 미식체험관을 운영할 민간 전문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왕인박사유적지 미식체험관을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미식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운영자는 2025년 9월부터 3년간 미식체험관을 운영하며 미식관광자원 개발 등에 나서게 된다.

공모 지원자는 운영제안서 등 구비서류

영암 왕인박사유적지에 미식체험관 생긴다

21~23일 미식체험관 위탁 운영할 민간 전문 운영자 공개 모집

를 갖춰 영암군 관광과에 방문·제출해야 한다. 영암군은 서류·정량, 제안서·정성, 가격 평가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하고,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나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영암군은 이번 공모와 함께 미식체험관의

대규모 시설 개보수로 관광 자원 만들기에 나선다. 김동식 영암군 관광과장은 "왕인박사유적지 미식체험관이 관광객에게 양질의 먹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정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시설 자체도 지역 대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꾸겠다"고 전했다.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는 주변 백리벚꽃길과 함께 매년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는 관광명소로, 주변에 야경이 아름다운 상대포역사공원,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영암도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암도기박물관 등의 관광자원이 즐비하다. 영암/김희선 기자

진도군이 지난 8일 교류도시인 부산 서구를 방문해 양 지자체 간 우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했다.

부산 서구는 지난 2023년에 진도군과 "영호남 문화예술 및 관광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문화예술과 공연·축제 등의 관광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진도군은 '고향사랑

진도군, 문화예술 및 관광 교류도시 '부산 서구' 방문

양 지자체의 교류 활성화와 상생발전 우호 관계 도모

기부금 상호 동참과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스 모집' 운동(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문화예술, 관광 분

야를 넘어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상생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스' 100만 명 모집을 위한 도·시군 운동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지난해에 서포터스 모집 실적 평가에서 전라남도 내 1위를 달성했다.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스는 도내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모집 운동(캠페인)을 진행한다. 진도/오재명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3일 화순군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2일까지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천면 평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2회 도암면 도장경로당, 3회 동면 칠동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였다.

화순군 보건소,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인기

동면 칠동 경로당 어르신과 함께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진행

주요 프로그램은 운동활동, 원예활동, 공예활동 등으로 신체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체험형 활동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동면 칠동 경로당에서 실시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은 미술을 이용

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로 소근육 강화를 도와주고 치매예방제, 치매예방수칙 3·3·3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건강한 습관 형성을 도왔다.

이와 함께 정서적 안정과 우울감 감소에 도움이 되는 그룹 활동을 통한 어르신

들의 사회적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061-379-5316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농촌 어르신 위한 '왕진버스' 의료서비스 제공

한·양방 진료부터 구강·시력 검사까지, 400여 명 대상

곡성군과 곡성농협은 지난 9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의료지원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12일 전했다.

이날 행사는 곡성을 문화체육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곡성읍·오곡면·삼기면·고달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업인 약 400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번 의료지원에는 광주원광대 한방병원, 대한의료봉사회, 광주윤길중 센터뿐만 아니라 3개 기관이 참여해 한방 진료, 구강 검사, 시력검사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한방진료는 침 시술, 한방파스 및 제제 한약 처방, 오십견 등 근골격계 질환 진료, 영양제 처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원광대 한방병원 소속 의료진 15명이 참여

했다.

대한의료봉사회는 구강관리 검사와 구내 사진촬영, 치면세균막 및 치석 진단, 치과치료, 구강보건 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센터뿐만 아니라 녹내장 등 눈 건강 검진과 검안, 돋보기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의료지원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중간 점심시간을 포함해 참여기관 버스 설치와 현장 점검, 마무리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촌의 현실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번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곡성/이경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